

우레탄, 코스트 상승 수익악화 심화

수요강세 · 가격인상 불구 원료코스트 높아 ... 가격상승 지속될 듯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을 비롯해 MDI 등 우레탄 원재료의 수요가 지속적 강세를 나타내면서 생산기업들은 가격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 상승에 따른 마진압박이 심해져 실제 채산성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ASF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세계 우레탄 제품시장은 2004년 상반기에 13%, 미국시장은 10% 성장했고 2004년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MDI(Methyl Diphenyl Diisocyanate)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Polyol과 TDI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우레탄 화학제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레탄 생산기업들은 4월에 이어 7월에도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무리없이 흡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MDI 원료인 벤젠(Benzene), TDI 원료인 톨루엔(Toluene), 폴리올 원료인 PP(Polypropylene)와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을 상쇄해 마진률은 재투자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Huntsman은 2004년 세계 MDI 시장은 12-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 이후에는 공급 타이트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TDI는 수요둔화로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라고 지적한다.

Dow Chemical에 따르면, 2004년 폴리우레탄 성장률이 GDP 수준에 근접한 3-4%, Polyol은 GDP 수준을 약간 상회, MDI는 5-6%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MDI는 2005년에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부족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Dow는 TDI 성장률은 공급과잉으로 GDP성장률 수준을 약간 하회하고 있으나 중국,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주도로 2005년에는 GDP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레탄 생산기업들은 원료코스트 상승률이 가격상승률을 능가하고 있어 마진손실(Margin Squeeze)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9>